









BOB Magazine #186 April 2020



BCXSY is an Amsterdam-based interdisciplinary cooperative between designers Boaz Cohen (Israel, 1978) and Sayaka Yamamoto (Japan, 1984), established in early 2007. For over a decade the duo has been delivering an extensive body of work - almost solely the results of collaborations with partners all around the globe. Through sharing mutual passions and visions BCXSY has been creating rich, playful, research- and process driven narratives, concepts and designs. Perceiving craftsmanship as an attitude, Boaz and Sayaka believe in merging care, quality and awareness into an authentic, honest outcome. Their work serves as a trigger for a longlasting bond, emphasizing essential, personal experience and reflection. BCXSY has teamed up with internationally acclaimed partner such as Kvadrat, H. Stern, Philips Lighting, Calico Wallpaper, J & L Lobmeyr, Laboratorio Morseletto and Wallpaper*. Enterly Jill Park &



자유로우며 연구 및 과정 중심적인 내러티브와 콘셉트 그리고 디자인을 선보이고 관계를 맺고 있다. 편집: 박지일기자 있다. 공예술을 하나의 태도로 보는 두 디자이너는 배려하는 마음과 물성

BCXSY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종합 디자인 스튜디오로, 보아즈 코헤(이스라엨. 가치관을 혼합해 고유하고 직관적인 작품을 빚어낸다. 이들의 작품은 진한 1978년)과 사야카 야마모토(일본, 1984년)가 2007년 초에 설립했다. 지난 10년 🤍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근본적이고 개인적인 경험과 사유를 강조한다. BCXSY는





BOB Magazine #186 April 2020



107

808



ode to the immensity of mountain ranges and celebrating mankind's exploration 탐험 정신을 기리는 칸막이다. 광택 처리한 목조 프레임을 적용했고, 맞춤 제작한 모래주머니 of nature. The pieces feature lacquered wooden frames, supported by custom 추가 균형을 유지해준다. 여기에 포갤 수 있는 선브렐라사의 반투명 패브릭 막을 추가해 아치형 made sand-bag weights. Attached to these structures are overlapping, semi- 텐트폴을 덮도록 했다. 유연한 구조체와 우아하면서도 튼튼한 소재를 사용한 덕에 이 칸막이는 transparent Sunbrella fabric surfaces, spun on tent-poles arcs. Through the 실내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가벼운 패브릭 막은 주변 공기 흐름을 타고 가볍게 흔들리며, application of elegant and durable materials along with a flexible construction, 창의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the screens can be used both indoors and outdoors. The lightweight surfaces 2. 비루: 〈비루〉오프너는 숙련된 공예가 나카지마 조간과 BCXSY의 협업 결과물이다. redefine spaces. ***Photo © BCXSY

1,200 years, and since ancient times it has been used on swords (on the tsuba, 재정비되었다. the guard of a sword) and religious utensils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Golden and silver patterns are molded, inlayed on an iron base and baked with lacquer. Every single step is completed with extreme care by the craftsmen. This collaboration project is a result of a pop-up lab project between Kyoto and Amsterdam called Maker Kamer. In 2017 Maker Kamer relaunched as the new brand MUJUN. ---Photo © Mujun

1. THE GREAT OUTDOORS: <The Great Outdoors> are room dividers, paying 1. 그레이트 아웃도어스: 〈그레이트 아웃도어스〉는 산의 웅장함에 헌사를 바치고 인류의 자연

gently move, following the air flow of the environment, offering a playful way to 상감기법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공예술로, 1,200년 넘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아주 오래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칼 코등이(칼에 끼우는 보호대)나 제의도구에 적용되었다. 금색과 2. BIIRU: <Biiru> bottle opener is the result of a fusion between the skillful 은색 문양을 성형기법으로 만들어 철판에 상감한 뒤 광택 처리를 했다. 모든 공정 단계는 craftsmen of Nakajima Zogan and conceptual designers of Amsterdam based 장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했다. 이 협업 작품은 교토와 암스테르담의 팝업 연구실 BCXSY. Inlaying is one of the oldest crafts in Japan with a tradition of more than 프로젝트 '메이커 카머'의 결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MUJUN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3. BICOLORE: Laboratorio Morseletto is a family-owned company, internationally 3. 바이컬러 : 모셀레토 연구소는 가족이 유영하는 기업으로 비체차 스톤을 비롯한 각종 natural narrative illustrated through this peculiar phenomenon has formed the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시각화하고 그에 헌사를 바치는 언어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core of the collection. <BICOLORE> functions as an expandable form language, visualizing and honoring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 Vicenza Stone, as well as the correlation between volumes in the immense spaces in the subterranean mazes of the quarries. ***Photo © Laboratorio Morseletto

acclaimed for over a century for its high skill, innovation and craftsmanship in 대리석을 다루는 숙련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100년 넘는 세월 동안 국제적 명성을 쌓았다. Vicenza Stone and various types of marble. Vicenza Stone comes in just three 비체차 스톡은 회색 노란색 흰색 세 가지 색상이 존재하고 처음엔 다소 소박하게 느껴질 수 colors – gray, yellow and white, and at first sight may seem rather humble. Yet a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석재의 기원을 말해주는 작은 화석 입자들로 채워진 하나의 closer look reveals a whole universe of embedded tiny fossils – an evidence for the 우주가 모습을 드러낸다. 색상과 구조의 미묘한 차이가 주는 깊이감은 비첸차 스톤 특유의 stone's ancient origin, while a depth of delicate variations in color and structure 온기를 자아낸다. 모셀레토 연구소의 거대하고 환상적인 베리시 언덕 지하 채석장을 둘러보는 provides it with a distinctive warmth. Wandering through Laboratorio Morseletto's 동안 디자이너들은 노란색 암석과 회색 암석이 만나는 심토총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이 특이한 colossal, mesmerizing underground Berici Hills quarries, they were drawn to their 광경이 엮어내는 독특하고 역사적이며 자연스러운 서사는 〈바이컬러〉 컬렉션의 핵심이 되었다. deeper areas where the yellow and gray stones meet. The unique historical and (바이컬러〉는 비첸차 스톤의 특징 그리고 채석장 지하 미로의 거대한 공간을 채운 여러 물질

Coordination BCX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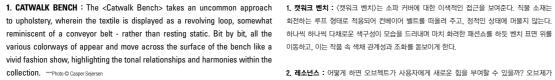


BOB Magazine #186 April 2020









repel evil spirits. Even though their view on this matter is different, they do like 일깨우거나 불러일으키고, 의식의 확장을 상징하는 투명한 차임처럼 보인다. the idea of a bell as a portable instrument, which can trigger the attention of its owner. The nested Borosilicate glass tubes resemble a pellucid chime, producing a delicate sound, awakening and inspiring one's knowledge of existence and symbolizing the amplification of consciousness. ***Photo © Floor Knaapen

2. 레소년스 : 어떻게 하면 오브젝트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할 수 있을까? 오브제가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 디자이너의 개인적 관점에 따르면, 인식 능력이 2. RESONANCE: How can an object empower its user? Can it exceed beyond the 상황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해결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힘의 mere function of a tool? From their personal point of view awareness can generate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종은 부적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여러 문화권에 종소리가 power by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a situation, which can assist in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민간 신앙이 펴져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reaching a resolution. Through the centuries bells have often been incorporated 다르지만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주의를 일깨워주는 휴대용 도구로서 종이 지난 의미가 매우 into talismans, as many cultures shared the common belief that their sound can 마음에 들었다. 레소년스의 보로실리케이트 유리관 다발은 섬세한 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B0B

109

3. LIGHT FOREST: Inspired by the sunlight shining through the woods, the panels. 3. 라이트 포레스트 : 나무숲 사이로 쏟아지는 해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3M 모늬목 through a play of light and shadows. The realistic and warm appearance of the 자연 사이의 관계성을 부각해준다. synthetic materials and lights used in <Light Forest> emphasize the relations between the man-made and nature. ***Photo © Phillips Lighting / BCXSY

4. MICROCOSMOS : <Microcosmos> is a captivating journey through dimensions 최첨단 이미지 처리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 수제 예술작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도장 마감한 and perception. Their childhood encounters with the craft of bubble prints have 뒤 그전까지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크기로 확대한 덕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깊이감, 디테일, been taken further to a whole new level; pushing boundaries by using the most 색감을 보여준다. 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한 기념비적 디자인은 흥미롭고 환상적인 색상과 cutting-edge image processing technologies available, the handmade artwork 패턴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소박한 프린트물을 추상화하여 무언가 매력적이고 새로운 has been digitally painted and blown up to a scale which was so far impossible, 것으로 탈바꿈해놓는다. rendering depth, details and colors as never seen before. The newly created monumental impressions open a door to a curious, fascinating universe of colors and patterns, abstracting the homespun prints and transforming those into something exciting and new. ***Photo © Lauren Coleman

covered by a patchwork of 3M synthetic fine wood surface resemble an abstract, 필름으로 마감한 패널은 우거진 숲을 추상화한 것처럼 보인다. 원화이트 LED 조명은 dense forest. The warm white LED lights randomly illuminate the wall through 입체적 절개부를 통해 벽을 비추고, 빛과 그림자의 어루러짐은 환상적이고 놀라운 움직임을 three-dimensional cuts, resulting in a mesmerizing, unexpected effect of movement 만들어낸다. 〈라이트 포레스트〉에 쓰인 인공 소재와 조명의 사실적이고 따뜻한 느낌은 인공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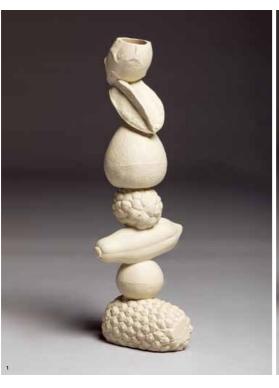
> 4. 마이크로코스모스: (마이크로코스모스)는 공간과 인식을 넘나드는 매혹적인 여정이다. 디자이너는 어린 시절 경험했던 버블 프린트 놀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 > Coordination BCXSY



BOB Magazine #186 Apri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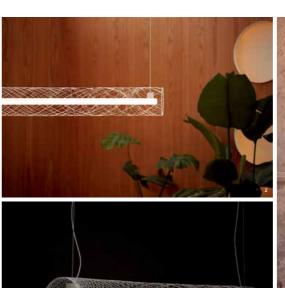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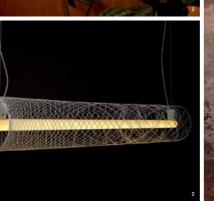




glaze executed by the craftsmen Jian-Fu Zhong and Wen-Yi Kung. Their ins- 세라믹 꽃병이다. 디자이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돌, 식물, 동물 등 자연물 형태로 만든 인상적인 piration originated from the immerse collection of objects and artifacts they 2 브제와 공예품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았다. 정교하게 표현된 디테일과 더불어 디자이너는 have seen at the National Palace Museum, particularly those shaped as natural 이들 오브제에서 초현실적이고 익살스러운 특징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상점이나 음료수 elements - from rocks to plants and animals. Besides the skillfully executed 자판기에 계절 과일이 다채롭고 이국적인 방식으로 진열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도 찾았던 details they perceived somewhat surreal and humorous characteristics in those 것이었다. 〈프루트 타워〉를 통해 디자이너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관계성을 objects - something they have also found back in the colorful, exotic displays 보여주고자 했다. of seasonal fruits in shops and juice vendors. With the <Fruit Towers> they wanted to display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Photo © Chong Kok Yew

1. FRUIT TOWER: The <Fruit Towers> are ceramic vases with high-temperature 1. 프루트 타워 : 〈프루트 타워〉는 기술자 지안 푸 중과 웬 이 쿵이 고온 유약 처리 기법을 적용한







based interdisciplinary design studio BCXSY and Rotterdam-based design studio 3, 테스트 튜브스: 형태와 기능에 대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디자이너는 황동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입체적이고 실용적인 제품을 제작하고자 했다. 브러시드 무광 마감면을 적용한 칸막이, 탁상, 꽃병은 컬렉션의 첫 번째 구성물로, 절단, 절곡, 배열 같은 단순 작업을

2. OUT OF ORDER: The ultra lightweight cylindrical construction consists solely of 2. 아웃 오브 오더: 작품의 초경랑 원통형 구조는 합성수지로 보강한 산업용 털실 뭉치로만 wound industrial yarn, reinforced with resin, that resembles a three-dimensional 구성되어 있고, 공간을 부유하는 선들이 입체적으로 어우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 play of lines suspended in space. At first glance the weave appears to be 작품은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턴들이 규칙적 형태에서 perfectly ordered, but a closer look reveals that the pattern gradually transitions 비규칙적 형태로 점차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의 뒤틀린 형태는 특별히 개발된 '무작위화' from regular to irregular. The warped lines are caused by a specially developed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는 섬유를 본래의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선들의 뒤틀린 'randomizing' algorithm that instructs the fibers to deviate from their course. As 형태는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때문에 제품이 저마다 독창적으로 보인다. 〈아웃 오브 오더〉는 the distortions in the linework are never the same, this makes each and every lamp BCXSY와 로테르담의 디자인 스튜디오 아틀리에 로보티크의 협업 결과물이다. truly unique. <Out Of Order> is the result of a collaboration between Amsterdam-Atelier Robotiq. ***Photo © Marta Musial

3. TEST TUBES : Through an experimental journey of form and function they have 통해 완성했고, 친숙한 건축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혁신적 타이포그래피를 been exploring new possibilities of using brass tubes to create three dimensional 만들어낸다. practical objects. A screen, a console and a vase, with a brushed matte surface, are the first members of a family, conceived through the simple actions of cutting, bending and ordering, providing a new perspective to this well-known constructional material and resulting in an innovative typography. ***Photo © SEEDS

Coordination BCXSY